

.....  
권두 인터뷰  
.....

가림 88-6

# 박영숙

평민당  
부총재

## 지금도 무슨 일이든 맡으면 첫사랑에 빠지듯 열심이지요

박영숙 평민당 부총재가 초선 의원으로 의정  
단상에 섰다. 여성 운동가로, 민권 투쟁가로 여성  
운동에 앞장서 온 박 부총재가 재야에서 정치가로  
화려한 변신을 한 지금, 그의 정치와 국정에 관한  
생각을 들어봤다.

정리·양준호 기자  
사진·이기봉 기자



—정치 입문 5개월여에 양대 선거를 겪는 등 정신없이 바쁘셨을 텐데 초선의원으로서 느끼는 어떠신지요.

“총선을 흥분 속에 끝내고 이어 임시 전당 대회, 구속자 석방 준비 등으로 저 개인의 등원 준비는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국회 의원 등록도 아직 못 했으니까요. 가방에 서류는 담고 다닙니다만 시간이 없어요.”(박 부총재는 14일 사진 촬영을 위해 의

—어느 상임 위원회 소속을 원하십니까?

“여련(여성단체연합)에 있을 때 주 관심사가 인권 문제였고 지금도 주변에 구속자 가족, 해고 노동자 피해 보상 등 많은 문제가 있어 역시 그런 일을 할 것으로 믿으나 상임 위원회에서는 그런 통상 개념을 깨려고 하는데 마음대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보사위에 갈 의향은 없고 내무위에 가고 싶는데 당중진은 인기 없는 데로 간다고 하니까.”

—13대 국회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연령상으로 젊어지고 재야 인사들을 포함해서 각 분야의 대표들이 고루 참여해 참신해졌다고 봅니다. 특히 여소야대란 정국에서 민주화 박차는 필연적일 것이며 최소한 과거와 같은 거수기 역할 같은 건 없을 것입니다. 국회 자체로서도 막강한 힘을 가졌지만 국민이 크게 걱정하고 지켜보고 있어 무엇인가 새로운 자세로 임해야 하리라 믿습니다. 이런 여러 각도에서 볼 때 밝은 전망입니다.”

—머칠 지나면 6월 항쟁 1주기가 다가옵니다. 당시는 어떤 일을 하였고 이제 그 감회는 어떻습니까?

“당시 여련 수석 부회장으로 있으면서 권인숙 양 사건 대책 위원장, 박종철 군 사건, 이한열 군 죽음에 이어 6·10 대회 등으로 바빴습니다. 86년도 그랬지만 87년은 거의 길거리에서 살았으니까요. 12월 23일 평민당에 입당, 그간 동고동락해오고 있습니다.

저개인으로 보면 1년 전과 지금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도 서울 구치소 재소자 방문을 했고, 그에게는 이상수 변호사와 함께 이현재 총리를 만났습니다. 구치소 방문 때나 총리

면담 때 세상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가 놀랐습니다. 천지차이였어요. 지난해엔 총리 면담을 요청하고 4시간을 기다려도 면담이 불가능했었는데 같은 비서관인데도 이번에는 문밖까지 나와 안내를 했어요. 구치소에서도 특별 면회를 허락해주고 말입니다. 다섯 사람의 면담을 신청했는데 두 사람만 만났습니다. 공명 선거감시 운동으로 구로동 사건 때 구속된 김희선 씨(여성의 전화 원장)와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된 연세대 학생 우상호 군입니다. 그러나 대통령 투표 전날 ‘김대중 씨 양보했다’는 유인물의 원판을 가져왔다 구속된 오길록 씨는 절대 면담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국민의 힘이 정말로 크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범인이 아닌 정치범에게는 정치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봐요. 6·10 대회 이후 도도히 흐르는 민주화 열망에서 이런 일들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여련에서 평민당으로 옮기게 된 사연은 무엇입니까?

“사실 정당 가입은 전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해고 근로자, 성고문, 가족법 개정, 남녀 평등법 등을 해결하는 데에 여성 운동만으로는 힘이 못 미친다는 걸 절감하고 작년 봄부터 생각을 달리 했습니다. 우리도 의회를 통해 일하자고 말입니다.

지금까지 각 정당이 여성 국회 의원을 냈으나 정당이 선발한 사람은 전혀 여성의 대표 역할을 못 했어요. 그런데 평민당이 부총재 1명, 당무위원 2명, 특별 보좌관 2명, 지도 위원 2명 모두 7명을 추천해 달라고 여련에 의뢰를 해왔었지요. 당시 여련이 발족한 지 3년 밖에 안 됐는데 7명이 나 나가면 어려울 것 같아 부총재 한



사당 구내로 들어가다 경비원의 심문(?)을 받은 후에 곧 이어 달려온 사무처의 한 직원으로부터 등록 대행을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서류를 넘겨주었다.)

—등록을 안 하셨으니 아직 의원이 아니잖습니까?

“그런가요?(옆에 앉았던 박석무 의원이 당선증만 받으면 그 때부터 의원 자격이 있다고 말하자) 그러면 저도 의원이네요(웃음).”

박영숙 부총재의 남편 안병무 교수는  
이렇게 농담을 한다. “저 사람은 항상  
밖으로 나다니까 바깥 사람이고, 나는  
안에만 있으니까 안사람이다.”

명만을 내보내기로 했는데 나이 등을  
감안해서 제가 차출당한 거지요.

## 권한 대행 맡아 쉴 틈 없이 뛰어

저는 가정 형편상 어려울 것 같아  
10여일간 결정을 못 내렸습니다. 집  
에서 아빠(安炳茂교수·한국신학대)  
와 아들이 몇 가지 조건을 제시하며  
이를 수락하면 밀어주겠다고 했어  
요. 첫째 30여 년 간 여성 운동, 민주  
화 운동 등 자발적으로 하는 일은 도  
덕적 인정을 받았으나 정치는 이와  
다르니 이런 모든 인연을 끊을 자신  
이 있느냐며, 정당은 이익 단체라서  
경쟁이 치열할 터인데 이겨 나갈 수  
있느냐는 것이었어요. 그런 어려움  
을 극복할 자신이 있다면 가족으로서  
의 불편은 참아 주겠다고 밀어주어  
떼밀리다시피해 나왔지요.”

—그 때 당내 상황은 어떻던가요?

“이미 선거전에 돌입한 상태라서  
급박한 분위기였어요. 거기에 이질  
분자가 들어갔으나 당의 취약점을 보  
완한다는 의도에 따른 것이었으므로  
상당히 너그럽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도 거부 반응은 없었고 모두들  
잘 지도해주었구요. 부총재라서 앞  
좌석에 앉았는데 주부로 살아온 제가  
그런 대우에 익숙하지 않아 아주 혼  
났습니다. 대통령 선거 중에 당의 경



성 이미지를 연화시키는 데 주력했고 선거 후에는 재야 입당 문제 주선에 힘썼습니다.

대통령 선거 후 평민당이 ‘싱킹 보트’(침몰당하는 배)라는 여론 속에서도 정책 정당의 기치를 보고 재야가 이런 당을 살리자고 모여들었으나 김영삼 민주당 총재 퇴진과, 통합 문제 진통이 평민당에 비화, 김대중 총재까지 사퇴하는 바람에 재야 총재 권한 대행은 맡을 수밖에 없었던 어

## 박영숙 평민당 부총재 신상명세서

- 출생 : 32년 평양, 3남3녀의 둘째, 47년 어머니따라 월남.
- 학력 : 광주 전남여고 졸업, 55년 이화 여대 영문과 입학, 59~61년 필리핀 ‘극동대학’ 정치학과 수업, 67년 안병무 교수와 결혼.
- 주요 경력 : YWCA총무, 여련 수석 부총무, 87년 평민당 부총재, 총선중 평민당 총재권한대행, 현재 평민당 부총재
- 키 : 165cm
- 별명 : ‘황소’ ‘뚝배기에교쟁이’ ‘어머니부총재’
- 취미 : 다정한 사람과 식사중 이야기 나누기.
- 특기 : 음식 다량 빨리 만들 수 있다.

려운 때였습니다.

공천 후유증은 다 알려진 사실이지요. 여자라서 그런 난관을 넘기가 쉬웠겠죠. 뒤통수에 대고는 욕을 했는지 모르지만 면전에서는 점잖게 대해주었으니까요. 권한 대행 기간 의자에 등을 붙여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여련과의 관계는 어떻게 유지하십니까?

“입당하면서 YWCA, 여련 등 7개의 단체에 사표를 냈습니다. 그러나

여성 단체가 추천한 셈이므로 정보 제공을 계속 받아오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어려우신가요?

“총선이 끝나기 전에는 평민당이 탄압을 받는 국면에 처해 있어서 모두가 내적 결집력을 함께 해서 방어태세를 공동으로 취하고 전략도 운동권에서 투쟁하던 것과 별로 다름없어, 정당에 들어왔다는 의식을 전혀 갖지 않고 운동권의 연장선상에 섰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고 서로가 각자의 운신으로 돌아오자 당 정비에 들어가면서 개인 플레이가 생기고, 동료간의 갈등도 눈에 보여, 내 위치를 의식했습니다. 운동권에서는 어디까지나 자발적인 행동인이어서 하다가 힘들면 그만두지요. 그렇다고 책임감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곳은 그곳과는 또다른 성격의 책임을 지고 있어 이쪽이 더 어렵습니다.”

—그간 정치와 민심이 어떤 것이라고 보셨습니까?

“양선거를 치르고 나서 특히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국민이 실의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 국민들에게 평민당이 승리하여 기쁨을 안겨주었다고 봅니다. 그런 국민의 여망을 풀어주는 것이 정치라고 믿습니다만...

26일 아침, 당사에서 밖으로 나갔을 때 신문 배달 소년이 내 얼굴을 알아 보고 돈도 안 받고 신문을 주어요. 또 국밥집에 갔더니, 늘 가는 집이니 고기 양을 대략 아는데 그날 따라 더 많이 넣어주더군요. 국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를 보는 듯했고 이것이 민심이구나 생각하니 눈물이 났어요. (박 부총재는 역시 눈물을 글썽, 잠시 말을 잊지 못했다).

당선자 대회 때 총재 권한 대행으

로서 한 마디 해야 했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전혀 생각이 안 났어요. 자동차를 타고 북악터널을 지나는 순간 “진실이 통하는 때도 있구나”하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 교육과정에서 올바른 스승을 못 만난 거지요

—여야당 할 것 없이 홍일점 부총재입니다. 특별히 하는 일은 무엇입

“어려서 세례를 받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  
결혼 전 중류 이상의  
여성이 모인 단체서  
활동을 하며 37세에  
결혼 할 때까지 자기  
희생이란 것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또 남에게  
빛을 졌다는 느낌이 없이  
살아왔어요. 그러니  
얼마나 당당하고  
안하무인격이었겠어요.”

니까?

“여성이라고 여성 문제만 해서는 안 되겠지요. 특히 다른 여성이 없으니 여성 문제 이외에 양심수 석방, 인권 문제 등을 어머니 된 심정으로, 그들의 아픔에 동참한다는 자세를 갖겠습니다.

처음 당에 들어왔을 때는 아침마다 대책 회의가 열리면 긴박감 때문이었는지 큰 소리가 오가곤 했어요. 처음엔 큰 소리가 오가는 것이

상례였는데 이중재 부총재께서 소리 지른 분에게 다가가 숙녀 앞에서 그러지 말자고 조용히 이야기한 후로는 그런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나의 존재가 그렇게 분위기를 순화하는 데 기여했다고나 할까요.

앞으로 또 그 동안 물질적 가치관 팽배의 우리 주변에서 생명 중시를 우선 하는 일에 공헌하고 싶습니다.” —평소 어떤 생활관을 갖고 계십니까?

세진 일도 있어요. 그 일 때문에 세상에 태어나 잦을 수 없는 신세를 졌다는 느낌을 처음 가졌어요. 그 후 사람이 겸손해지고 애를 가지니까 간절한 기도도 가능하며, 애를 키우면서 희생도 하고 사람이 될 준비가 됐어요.

우리 애아빠가 나더러 더 나은 사람이 됐을 텐데 올바른 스승을 못 만나서 이 모양이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사실 교육 과정에서 올바른 스승

지금 가진 것이 내 것이라는 생각 없이 살고 있습니다.”

—왜 결혼을 늦게 했습니까?

“글쎄요. 저를 데려갈 사람이 없어서겠죠. (웃음) YWCA 분위기는 결혼을 꼭 강요하지는 않았어요. 일을 열심히 하는 성격이라서 일에 빠졌겠죠. 지금도 당에서 무슨 일을 맡으면 첫사랑에 빠지듯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보면 사람 못만난 것이 문제였나 봅니다.



“어려서 세례를 받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 결혼 전 중류 이상의 여성이 모인 단체서 활동을 하며 37세에 결혼할 때까지 자기 희생이란 것을 모르고 자랐습니다. 또 남에게 빚을 졌다는 느낌이 없이 살아왔어요. 그러니 얼마나 당당하고 안하무인적인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결혼 후 애를 낳으면서, 나 아닌 남을 위한 회교도 생기고, 난산 때문에 의사 선생님께 크게 신

을 못 만난 것도 사실이지요. 우리 애아빠가 소유를 부정하는 사람이라서 결혼 후 얼마 동안은 이 혼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민가는 사람이 주고간 물건을 갖다놓고도 한두 달간은 꾸지람을 받았어요. 지금도 쌀·연탄을 비축하면 큰 난리가 납니다.

13년 전 이사온 이 집은 크고 마당이 넓어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가진 것을 내놓으라 하면 언제든지 내놓을 마음의 준비는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저의 할머니님이 저를 시집보내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셨지요. 여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친척 결혼식 때마다 저를 데리고 다니셨어요. 제가 아파서 누워 있으면 제 곁에 오셔서 ‘아프면 무엇보다 남편이 와서 이마를 짚어주면 열이 내린단다’고 말씀하셨어요.

YWCA에 출근하면 할머니님이 곧 뒤따라 출근하셔서 ‘할머니님 출근부도 만들어라’할 정도였어요. 그 때

“사람들도 김대중 총재의 불사조 같은 강인함 만 봅니다만 연약함도 많다고 생각해요. 그분이 나에게 연약함을 보여 준 것이 있다면 ‘나도 한 게 있어요. 더 이상 못 참고 정계를 떠나야 할 참입니다’라며 수차에 걸쳐 고뇌에 찬 모습을 보일 때인 것 같습니다.”



고문이 박에스터 여사였는데 그분도 결혼을 안 한 올드 메이드라서 할머니는 “에스터야! 다 가르쳐도 좋은데 결혼 안 하겠다는 것만은 가르치지 말아라”고 매일 말씀하셨어요.

할머니가 하도 그러시니까 창피해서 어느 날 “할머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오늘은 다리 밑 지게꾼하고라도 결혼할 테요.”라고 했어요. 그러자 할머니가 깜짝 놀랄 말씀을 하셨어요. “야! 제 좀 바라. 지게꾼도

제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란다. 니가 하잔다고 할 줄 아니?”

나는 그 때까지도 누구한테라도 가서 결혼하자면 할 줄로 알았어요. 환상 속에 산 셈이지요. 그 동안 선도 많이 봤지요. 두 번을 못 보겠더라고요. 우리 애아빠도 중매장이가 섰다면 못 했을 것입니다.”

—그간 부군인 안교수님께서는 평점을 몇 점이나 주시던가요?

“간여하시려고는 않으나 ‘괜찮아’ ‘표정보니 건달만하나 봐’라고 하시는데 그런 걸로 보면 아직은 괜찮게 보신듯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 아들과 협의하셨어요. 그때 당사정이 좋았다면 그만하라고 하셨을지도 모르겠구요. 이번엔 전국구를 하니 4년 더 봐준 것 같아요.”

—식구를 좀 소개해 주시지요.

“한신대 명예 교수로 있는 안병무 씨가 아빠고, 서울대 수학과 2학년생 재권이가 아들, 모두 세 사람입니다. 우리 식구들은 철저한 자유주의자입니다. 남편은 서울대 사회학과를 거쳐,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신학 박사가 됐지만 목사가 안 되고 주례도 안 서는 분입니다. 민권 운동으로 수차 투옥 중 건강을 해쳐 심근쇠약증세를 앓고 있어서 요즘 아침 10

시까지 소리가 안 나면 가만가만 2층으로 올라가 숨소리가 나나 살펴봅니다.”

—김대중 총재와는 어떤 인연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 인간적으로 깊이 사귄 기회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서로 알고 지낸 지는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회호 여사가 YWCA 총무로 있다 결혼하셨을 때 (62년) 결혼 장소가 이 여사 외삼촌





지난달 14일 김총재 댁을 방문했을 때  
마침 릴리 미 대사로 만나 환담을  
나누었다. 김 총재는 '박 부총재가 더  
예쁘다'고 릴리 대사에게 한마디 하기도.

되시는 경제계 원로인 이원순 씨 댁  
대청마루였는데 그곳에서 얼굴을 본  
셈입니다. 직원들이 저녁을 사라고  
해서 서로들 이야기했고 그 이후로는  
저희 집에 재야 인사들 모임에서였을  
것입니다.

이 여사는 YWCA의 나의 전임 총  
무여서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었으며  
3·1 명동 사건으로 아빠와 다른 인사  
들이 투옥되고 김 총재는 불구속 입  
건되었을 때 구속자 가족들로 자주

만났지요. 김 총재는 불구속 상태라  
서 재판정에 참석했다 재판 내용을  
암기, 기록해와 우리들께 말해주고  
해서 머리가 좋으신 분인 줄 알았습  
니다.

사람들은 김 총재의 불사조 같은  
그의 강인함만 봅니다만 연약함도 많  
다고 생각해요. 그분이 나에게 그 연  
약함을 보여준 것이 있다면, 나도  
한계가 있어요. 더이상 못 참고 정계  
를 떠나야 할 참입니다라며 수차에

걸쳐 고뇌에 찬 모습을 보일 때인 것  
같습니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 전에  
야당 통합 문제가 모든 매스컴이 집  
중적으로 김 총재에게 공격을 퍼부울  
때, 일체 함구하고 있는 모습이 감동  
적이었어요.

그분은 외환에는 강하나 내우에  
는 약한 것 같습니다. 문동환 박사가  
미국서 느끼셨다고 하셨는데 그분은  
오직 정치에만 관심이 있지 않나 싶  
습니다.”